

Q. 이번 전시에서 건축(공간)사진이 작품으로서 기존 작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사실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계속 고민해 왔던 부분이지만 이전에는 전문적인 상업 사진작가로서의 저의 작업과 작품으로서의 작업을 구분해서 진행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낡았으나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있었기에 오래된 아파트나 건물에 대한 기록의 형식으로 상업적 활동과는 별개의 작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광주극장'의 작업은 저의 이런 의지를 지속하고자 하는 결과물입니다. 기존 작업과 다른 부분은 몇년 전의 저의 작업이 대상을 이해하고 담는 것에 충실했다라고 한다면 근래의, 최소 3년 여 전부터의 작업에서는 저의 해석과 시도를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Q. 이번 전시에서 특별히 '현재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이 갖는 특성은 현재를 기록하는 동시에 과거를 포함하게 되는데, 작가님의 '현재성' 역시 현재와 과거를 함께 내포하게 되는 것이요?

A. 사진 안에 담긴 그 순간의 이미지는 늘 현재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으로 찍히고 난 순간 이후는 모두 과거가 되므로 우리는 미래에서 그 사진을 보고 있지만 실상 사진에 담긴 순간 고정된 이미지는 늘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현재성이자 현재 진행형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Q. 이번 전시의 건축사진에서 공간성이 아닌 '시간성'은 촬영한 당시의 시가지 의미일까요, 혹은 촬영된 결과물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속에 있는 걸까요?

A. 두 가지를 다 포함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대상인 건축물을 촬영할 때 어떤 모습을 담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앞에 둔 대상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습과 내외부의 공간을 경험하며 어떤 시간대에 어떤 공간을 어떤 이미지로 표현할까 하는 고민이지요. 예를 들자면 촬영할 당시가 2014년 2월의 겨울이었고 그 겨울의 시간적인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어스름 저녁에 눈이 훑날리는 날 촬영 대상인 건물이 홀로 서있고 그 앞을 눈바람을 헤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과 시간과 느낌을 의도된 기다림(적절한 시간과 사람 등등..)을 통해 사진에 담아냅니다.

Q.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한 장치들은 어떠한 것들이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아침 혹은 오후의 빛, 어스름한 시간, 내부로 스며드는 한 줄기 빛, 혹은 빛이 사라져간 어둠이 등장하는 시간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장치는 사람입니다. 적절한 시간과 공간에 등장하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의미 전달요소입니다. 단순하게 건물이나 공간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작은 장치가 아니라 때로는 건물이 사람의 배경이 되어 전체 주제를 만들어 가는 역할도 합니다.

Q. 대상을 선정할 때 건축물(혹은 공간)의 디자인적 요소가 작가님의 의지와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A.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 건축물이 놓여져 있는 공간적 위치라던가 그 때의 상황들이 보다 중요한 의미로 작용합니다. 이번 전시작품들은 대상을 만나고 느끼는 순간을 찍은 사진들 중에서도 저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간 사진들입니다. 따라서 촬영될 대상은 의뢰를 받아 선정되었을지라도 그 이미지는 의뢰하신 건축가가 촬영해 줬으면 하는 상업적 결과물이 아니라 제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로서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